

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9. 7

8월 미국 고용: 저임금 중심 상승, 시선은 다시 물가로

해외채권/크레딧 | 박지빈 | jibin@ls-sec.co.kr

헤드라인 반등과 과거치 상향, 7월 부진 상당 부분 되돌림

8월 미국 비농업고용자수는 전월대비 16.2만명 증가하며 예상치(+5.6만명)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6월 고용은 +2.0만명→+3.1만명, 7월은 -2.3만명→+2.1만명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두 달간 고용도 기존 추정 대비 5.5만명 증가했다. 이에 최근 3개월 평균 고용증가 폭은 7.1만명으로 반등했다.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보합했다. 경제활동인구가 68.3만명 증가한 가운데 취업자도 56.9만명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61.4%→61.6%, 고용률은 58.9%→59.1%로 상승했다. U6 실업률도 7.9%에서 7.7%로 하락했다. 사업체와 가계조사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7월 고용 부진 이후 확대됐던 노동시장 둔화 우려는 일부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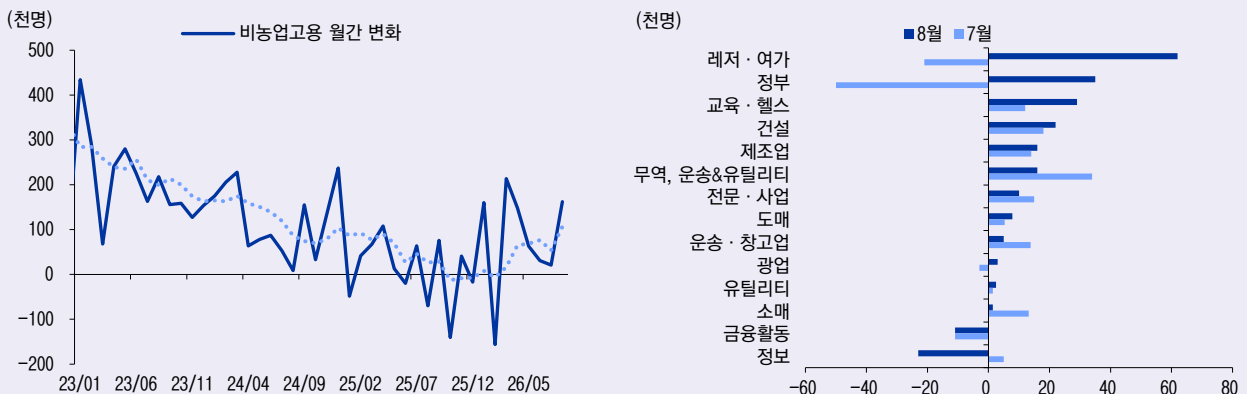
저임금 업종이 고용 견인, AI 투자 관련 수요는 일부 지속

다만 고용 증가의 구성은 헤드라인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레저·접객업이 6.2만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음식서비스·주점이 5.9만명을 차지했다. 지방정부 교육도 4.2만명 늘어 고용 증가를 주도했는데 이는 전월 감소분의 반등 성격이 강해 8월 고용 가속 요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정보업과 금융활동 고용은 각각 2.3만명, 1.1만명 감소했다. 저임금 업종의 고용 비중 확대와 고임금 업종의 감소는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기계(+0.6만)와 금속가공 제품(+0.6만)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고, 건설업(+2.2만)에서도 비주거 전문건설업(+0.8만)의 증가가 확인됐다. 개별 고용을 데이터센터 투자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기계·금속가공 및 비주거 전문건설 등 AI 인프라 구축과 연관이 높은 업종에서 고용 증가가 수개월 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가 일부 노동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금 압력은 제한적, 고용 부담 완화로 물가가 9월 인상의 최종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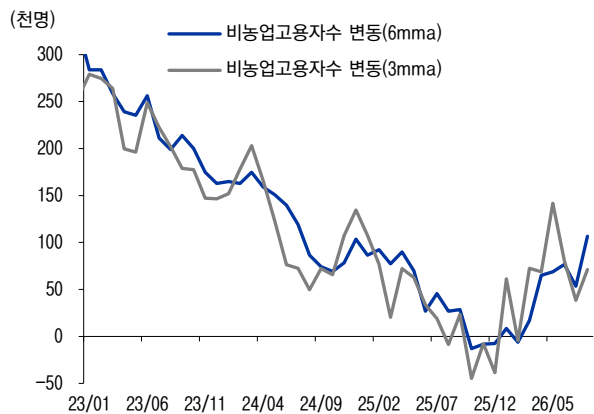
시간당 평균임금은 0.3%MoM 상승했으나 YoY 상승률은 3.2%→3.1%로 둔화됐다. 저임금 업종 중심의 고용 증가에 따른 구성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 반등에도 임금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제약하던 고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물가 안정에 보다 무게를 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CME Fedwatch 상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약 52%→6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 다만 안정적인 임금상승세를 감안하면 이번 결과가 긴축 필요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 케빈 워시 의장이 노동시장을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하며 물가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시한 만큼, 9월 정책의 무게중심은 다음 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로 이동했다.

그림1 미국 비농업고용자수 변동과 업종별 고용자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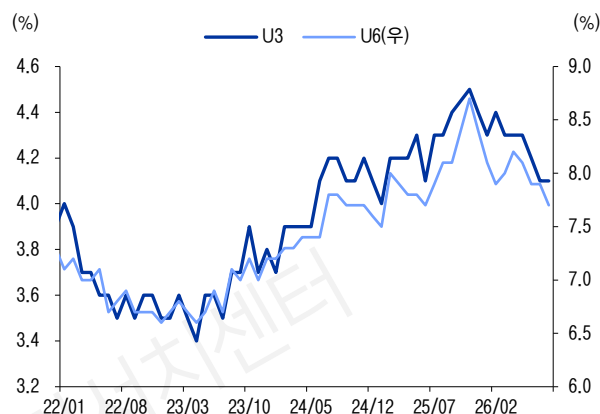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비농업고용자수 이동평균(3/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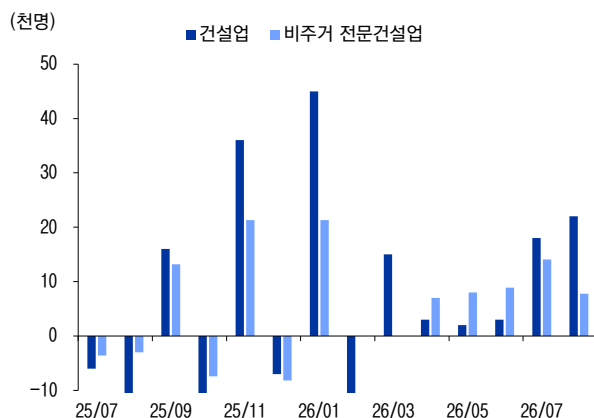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국 공식 실업률과 U6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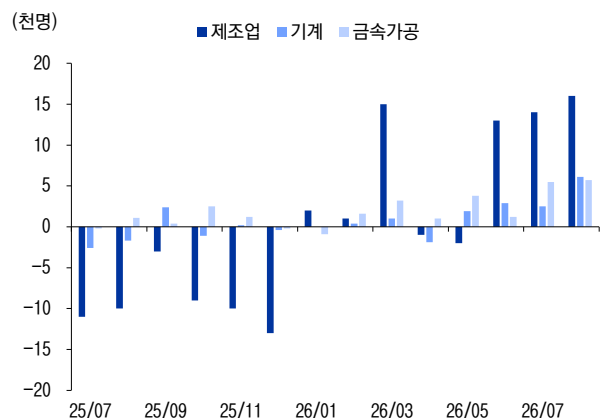
그림4 건설업과 비주거 전문건설업 추이



주: 비주거 전문건설업은 전기·배관·콘크리트 등 비주거 건설의 특정 공정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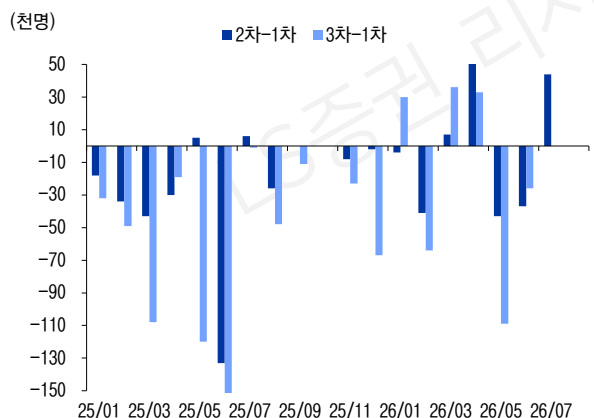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제조업 관련 고용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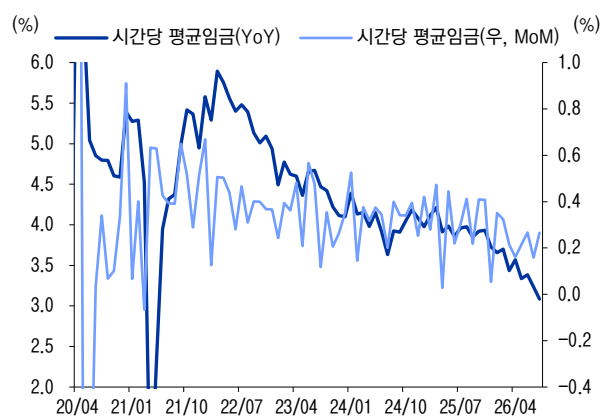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 고용지표 추정치와 확정치 괴리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미국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지빈).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